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10일 출범

'5분과 · 3특위'로 전북 미래 청사진 그린다

재생에너지 · 피지컬AI 미래산업, 내발적 발전 체감성장 등 5개 분과

5극 3특 호남 · 제주 메가시티, 하계올림픽, AI 반도체 등 3개 특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오는 10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민주권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복지 증진 등을 핵심 축으로 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설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인수위는 단순한 행정 인수·인계를 넘어 향후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호남·제주 메가시티, AI반도체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 △내발적 발전 체감성장 분과 △도민주권 분과 △글로벌K 분과 △도민행복 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재생에너지와 피지컬AI 미래산업 분과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된다.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햇빛·바람 연금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피지컬AI 분야를 전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내발적 발전 체감성장 분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발굴해 도민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

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도민주권 분과는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도민주권 실현 방안과 함께 안전, 소방, 인권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개선 과제를 검토하며, 주민이 도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글로벌K 분과는 전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K-컬처와 K-푸드, K-농정 등 전북의 강점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민행복 분과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복지, 환경, 보건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농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산하에는 3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5극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는 광역권 연계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조직으로, 이원택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초광역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계올림픽 특별위원회'는 전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올림픽 유치 전략을 집중 검토한다. 체육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 기반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026 AI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는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전북을 국가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인수위는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인수위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또한 행정지원실과 대변인, 일정팀, 수행팀, 홍보팀, 취임식준비팀 등 실무조직도 이미 구성을 마쳐 인수위 활동을 뒷받침할 준비를 완료했다.

이원택 당선인 측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성공적인 민선 9기 도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인수위원회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민주권 실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제시된 민선 9기 도정 비전이 향후 전북 발전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 대도약 위한 새출발" 민주당 도당 선대위 해단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준병)가 8일 해단식을 갖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체제를 공식 마무리하는 한편, 전북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날 해단식에서 선거 승리를 함께 이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팀' 정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공괄상임선대위원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인, 광역의원 당선인, 주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당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선거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의 기대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공유했다.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단식은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도민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를 깊이 새기고 당선자들과 원팀이 되어 전북 발전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대체불가 대한민국 있는 대체불가 전주"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
"대전환의 여정 시작할 것"
민선 9기 핵심 정책 방향
도시 혁신 등 2가지 제시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은 8일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대체불가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껏 대통령이 제시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있는 대체불가 전주를 만들겠다"며 민선 9기 전주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당선인은 8일 오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전주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껏 정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전북과 전주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큰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지와 격려뿐 아니라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까지 겸허히 받아들였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주권이 살아있는 열린 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 당선인은 전주시가 당면한 재정위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는 즉시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겠다"며 "전주의 재정 현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통해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회복은 전주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정책 방향으로서는 경제 활성화와 도시 혁신을 제시했다.

조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종합경기장 부지 마이스(MICE) 산업단지 조성, 전주역 세권 개발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속도를 높여겠다"며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의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복원도 주요 시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조 당선인은 "시민의 목소리는 정책 추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시민 의견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의 참여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혼자 독주하지 않고 행정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시민과의 토론과 협력을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도시 혁신을 민선 9기의 대표 비전으로 내세웠다.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형식을 과감히 생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당선인은 "형식적인 취임식은 개최하지 않겠다"며 "취임식을 대신해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취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당선 소감 발표를 넘어 재정위기 극복, 시민 주권 회복, AI 기반 도시 혁신이라는 민선 9기 전주시정의 3대 축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대체불가 전주'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은 향후 전주시가 추진할 정책과 행정 전반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수소산업 투자 '속도'... 국토부, 중국 선도사례 직접 확인 나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수소·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수소시장인 중국의 선도 사례를 직접 점검하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출장단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국 베이징과 내몽골 지역을 방문

해 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수소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정책 동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협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출장단은 첫날인 8일 베이징에 위치한 수소 산업 집적단지인 다싱 국제수소에너지 시범구를 방문했다. 이곳

에서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생태계로 연결된 완결형 수소 산업 모델을 확인하게 된다.

이어 9일에는 내몽골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찾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수전해 설비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전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방식,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만호 기자

화제의 6·3 지선 당선인 - '9선'에 성공한 김승범 정읍시의원

"주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장애 딛고 9선 신화 써
31년 생활정치로 일궈



전북 지방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인물이 있다.

정읍시의회 최다선 의원이자 전북 최다선 의원인 김승범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9선 고지에 올랐다.

1995년 태인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입성한 이후 무려 3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지역 주민들을 지켜온 결과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정읍시라 선거구로 태인면·용동면·칠보면·산내면·소회면 등 5개 면 지역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변함없이 그를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당선권에 진입하며 9선 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정읍시정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특히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화려한 정치 구호보다 주민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있었다.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 농로와 배수로를 살피고, 마을 안길 재포장 사업을 행하며, 주민들

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주민들은 그를 정치인이 아니라 '마을 대변자'로 받아들였다.

그가 30여 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안타깝게 지켜본 것은 농촌 소멸 문제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칠보면의 문화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다.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사원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원을 조성하고, 60억 원 규모의 유교수원원을 완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삼진강권 노인복지관을 유치해 10여 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태인면의 역사문화 자원 보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태인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신외면은 전봉준 김개남 등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그는 이러한 역사문화 자산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삶은 정치인 이전에 인간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는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관직 이상으로 장시간 이동과 활동이 쉽지 않지만 의정 활동을 멈춘 적은 없다.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현장을 찾는 이유 역시 주민과의 약속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학업에 대한 열정도 남달랐다. 장애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김제의 백성대학 사회복지경영과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노력은 주민을 이해하고 섬기는 의정철학으로 이어졌다.

"주민을 위해 일하려면 먼저 주민을 이해해야 한다. 공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1995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31년 동안 주민들을 지켜온 김승범 의원.

화려한 정치적 수사보다 주민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고, 장애와 고령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주민들이 그를 9번이나 선택한 이유는 거창한 정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뢰 때문이기도 모른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김승범 시의원의 9선 기록은 단순한 최다선의 의미를 넘어 생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 그것이 전북 최다선 의원 김승범이 걸어온 길이였다. /이만호 기자

정동영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 바로 세워야"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이 대표를 맡고 있는 북핵평화공존포럼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중 정상회담과 중·러 정상회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새 정부의 평화공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동영 의원과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외교·안보 전문



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투키디데스 함정'은 미·중 전략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라며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실용적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희옥 교수가 발제를 최종권 교수가 공동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남주 교수, 민정훈 교수, 김동엽교수가 나섰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중·북 삼각관계 속에서 중국은 조·미 간 직접 중재에 나서기보다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며 토론화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